

2023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 공모 개요

- 공 고 명 : 2023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 공모 주제 :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
- 공모 부문 : 작곡

편성	연주 시간	시(詩)
노래와 피아노 또는 노래와 피아노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실내악(목관악기, 현악기 중 선택)	3~5분 이내	· 이상호 「열망」 · 박정애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 류명선 「부마의 바람」 · 김석주 「봉기」 · 조해훈 「그림이 되었던 그날」 ※ 5개의 시 중 선택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시상 내역

구분	시상 및 상금		수상
종합	대상	상금 5,000,000원 및 상패	각 1명
일반부	우수상	상금 1,000,000원 및 상장	
대학부	우수상	상금 1,000,000원 및 상장	

- 주최 :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MBC경남

■ 창작곡 공모 진행 과정

공고	⇒	공모접수	⇒	예선 (1차악보심사)	⇒	본선 및 시상 (2차실연심사)	⇒	수상작 발표*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행사
'23.6. 中		'23.8.2. ~8.11.		'23.8.16.		'23.9.23.		'23.9.25.		'23.10.16.

※ 수상작 발표 : 재단 홈페이지

※ 본선(실연 심사) 유튜브 생중계 (MBC경남&재단)

- 일시 : '23. 9. 23.(토) 오후 4시
- 장소 : 창원 MBC경남홀

주최측(재단) ⇒ 지역 연주단체에 의뢰 ⇒ 지역 내 연주단체에서 구성된 팀이 실연

■ 공모 접수

- 접수 기간 : 2023년 8월 2일(수) ~ 8월 11일(금)
-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당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41, 4층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우)51729
 - 전화 : 055-265-1018
- 제출 서류 : 출력본 및 USB 제출

출력본	1) 신청서 및 확인서 1부 (서식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 홈페이지(http://buma1979.or.kr)에서 다운로드 2) 작품설명서 총 5부 (서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4에 작성(500자 내외) 3) 악보 총 5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4 규격, PDF 파일, 악보와 표지에는 작품명 외 기재하지 말 것
USB	1) 악보(PDF) 2) 작품설명서(PDF) 3) 음원 파일(mp3 또는 wav), 동영상 제외

※ 제출하는 USB 파일명에는 이름 표시

■ 공모 심사

- 예선
 - 재단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
 - **심사는 악보로만** 이루어지며, 음원 파일은 참고용
- 본선
 - 재단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 심사
 - 악보와 실연 연주 심사 후, 우수작 선정
- 심사 기준
 - 대중성, 독창성, 창의성, 예술적 완성도, 취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신청 시 유의사항

-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으로 **미발표 순수 창작곡**
 -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은 환수합니다.
- 악보와 표지에는 작품명만 기재, **악보 내에 이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악보, 음원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속합니다. 단, 수상작의 저작권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사용 시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공모 최종 선정 후, 연주 실연에 있어서 작곡가와 협의 후 수정 가능합니다.
- 상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우수작이 없는 경우 해당 부문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기념사업(창작곡 공모)담당 055-265-1018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BUMA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FOUNDATION

열망

이상호

파도처럼 밀려오는 함성 앞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독재의 세상 속 18년 웅크리고 살아 온 뜨거운 열망
총구 앞에서도 탱크 앞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자유여! 민주여!
부서지는 포말처럼 흩뿌려지는 핏줄기여 자유의 민주의 꽃이여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박정애

나무가 나무에게 팔을 뻗어 어깨를 곁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평등평화 상식과 순리가
일상이 되는 아름답고 강건한 나라로
우리 함께 가자고
우리 모두 숲이 되어 같이 살자고

강물 같이 흘러간 그 사람들
아직도 거기 있을라나
부산에서 마산에서 중앙대로를 가득 채운
경상도 사투리로 그날의 뜨거웠던 푸른 함성이
저 초록유희이 물결치는 숲속에서
아직도 타오르고 있을라나

질곡을 건너온 항거의 역사
민주를 찾아 맨몸으로 싸웠던 등대 같은 사람들
그날의 노엽고도 서러운 의분은
피와 눈물의 함성이므로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았으니
돌아보면 초록으로 가는 길은 눈물겨워라

세상의 아픈 자리마다 꽃이 피었어도
고난의 연대를 기억하는 용이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전후좌우 짝 막힌 그때 그 거리로
다시는 그 절망의 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뒤돌아서지 않는 강물처럼
결코 다시는.

부마의 바람

류명선

그대 10월의 바람이 되어 왔구나
내 목덜미를 때리며 가는 너의 발자국
또다시 깨어나는 부마의 회오리바람 되어
우리의 품으로 찾아왔구나
최루탄 연기 속에 문드러진 그 얼굴로
우리들의 목마른 갈증을 풀어내며
나가라,
나가라고
일렁이는 바람으로 살아왔구나
빗발처럼 우수수 몸을 날려서
저 퍼져가는 연막탄의 하얀 뼈되어
너와 나의 어깨에 어깨를 차고
나가라,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구나
윙윙거리는 함성으로 다시 다시 와
가지 않는 어둠 속에 잠잠하게
나가라,
나가라고
그대의 목원 10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봉기

김석주

벌떼처럼 일어났지 이 땅의 주인들이
물러가라 독재정권 유신헌법 철폐하라
목청껏 민주주의를 돌려 달라 대들었지

하늘의 뜻에 따라 맞서고 뭉쳤음에
공수부대 장갑차도 무섭지 않고 오직
힘 모아 독재타도를 고래고래 외치었지

한목숨을 걸었다네 부마의 젊은이들
민주주의 삶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영차 함께 일어나
새 역사에 썼음이라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그림이 되었던 그날

조해훈

뿌연 운무나 휘몰아치는 바람도 없었다
낮은 블록담집을 감싸는 햇빛은 음산하였고
휘청거리며 고개를 올라가는 바람은 가라앉았다
소주 냄새 몸에 뱀 중늪은이도 한 사람 없는
오로지 새파란 젊디젊은 우리들
맴찬 바람 가르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누구 하나 이 시간에 모이자는 약속 없이
집에 있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청춘의 정신으로, 굳이 운동권 학생이 아니어도
아무도 망설임 없이 달려 나와 두 주먹 쥐고
새 세상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되었던 그날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